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전 동화구연 및 손유희

정재용 지음

꽃

윤보영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안 예쁜 꽃이 없다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미운 꽃도 없다

엄마 없는 날

강정연

찬물 한 그릇 따라 붓고
신 김치 풍덩 집어넣고
참치 캔 탈탈 털어 넣고
가스 불 탁! 켜서 보글보글 끓이고
하얀 밥 두 그릇 마주 앉았다.
“오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지.”
“우와.....” 한 입 꿀꺽 “우웩!”
“그런데 맛은 어디 갔어?”
“어? 엄마 따라갔나 봐”

동화구연의 정의

1. 동화구연이란?

동화 속에 담겨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목소리의 연기와 동작을 통하여 그 내용을 감동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며, 동화나 동시를 이해, 분석, 개작하여 입체적인 음성언어로 구연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문학과 교육성을 언어감성으로 향상시키는 것임.

‘문학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감동을 주어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다’ - 괴테 -

동화는 어린이들이 최초로 만나는 문학이며, 문학과 만남에서 얼마만의 감동과 경험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터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임.

이러한 가치는 유아기에 형성되는데 어린시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아동문학(동화)을 빼놓을 수 없음.

동화구연지도사의 정의

1. 동화구연지도사는?

동화나 동시를 이해, 분석, 개작하여 입체적인 음성언어로 구연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문학과 교육성을 언어감성으로 향상시키고 동화내용을 중심으로 총체적 언어교육 또는 통합적 교과영역으로 접목하여 수행을 진행하는 전문 교사임.

동화구연지도사는 동화를 들려주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학습방법으로 동화를 통해 학습도 하고 놀이도 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아동문학 속에 담긴 지혜와 꿈과 희망을 감동과 즐거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함.

발성

1. 말하기의 기본 원칙

- 가) 천천히 말함.
- 나) 크게 말함.
- 다) 또박또박 말함.
- 라) 자연스럽게 말함.

2. 기본자세

- 가)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림.
- 나) 손은 계란을 잡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주먹을 쥐고 옆구리에 붙임.
- 다) 가슴은 반듯하게 펴.
- 라)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시선은 앞을 봄.
- 마)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함.

3. 입술 운동

- 가) “푸르르르르” 하며, 입술을 떨어봄.
- 나) “하히, 헤히, 히히, 호히, 후히”를 반복해서 해봄
- 다) “룰루랄라 랄라룰루”를 반복해서 해봄
- 라) “삐로롱 삐로롱 삐로롱 삐로롱”을 반복해서 해봄
- 마) “개구리 뒷다리”를 반복해서 해봄

4. “아” 소리 내기

입술을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뿜으면서 길게 “아~~~~~” 소리를 낸.

소리는 일정하면서도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하며, 처음에는 길이가 짧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여 점점 소리의 길이를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함.

발음 연습

1. 들의 콩각지는 깐 콩각지인가 안 깐 콩각지인가.
깐 콩각지나 안 깐 콩각지나 콩각지는 다 콩각지인데,
깐 콩각지면 어떻고, 안 깐 콩각지면 어떠냐.
2.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 이다.
3. 작년엔 온 솔장수는 새 솔장수이고, 금년에 온 솔장수는 현 솔장수이다.
4. 신진 상송가수의 신춘 상송쇼우.
5.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가과장 한국관광공사 과진광 관광과장
6. 앞 집 팔죽은 붉은 팔 풋팔죽이고, 뒷집 콩죽은 콩단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7.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흘겹창살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흘창살이다.
8. 저기 계신 저 분이 박 법학박사이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 박사이시다.
9. 저기 있는 말뚝이 말 땀 말뚝이나, 말 못 땀 말뚝이나.
10.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11. 한양양념장점 옆에 한양양념점, 한양양념장점 옆에 한양양념장점
12. 내가 그린 구름그림은 새털구름 그린 구름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그림은 깃털구름 그린 구름그림이다.
13. 철수 책상을 새 철책상으로 바꿀까, 새 쇠책상으로 바꿀까.
14.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동화구연 화술

1. 발성과 호흡 요령

- 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집어넣은 자세가 좋음
- 나) 해설과 대화는 정확하게 구분하여 구연
- 다) 띄어쓰기, 고저장단, 호흡처리, 정확한 발음, 감정 표현

2. 신체부위를 통한 발성법

신체부위	동물소리	인물음성	음성 표현
배 밑	어 흥~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애, 어멈아~ 물한잔 다오
배 밑	음메헤헤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너라~ 아이구 허리야~
배 전체	멍멍멍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 가슴	아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애들아, 멀리가지 마라~
목, 입술	개굴개굴	남자아이	안녕하세요? 난 축구를 좋아해요.
목, 머리	피꿀피꿀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난 노래를 좋아해요. 아~예쁜 내 얼굴
목, 입술	삐약삐약	아 기	안녕하세요? 아~ 목말라, 엄마, 안아주세요.
목, 배	꿀꿀꿀	돼 지	안녕하세요? 저는 저팔계라구 해요~ 헤헛
목, 배	히히히	마 녀	히히히. 나는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나쁜 마녀라구~
목, 코	호호호	맹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맹구예요~
목, 배 밑	우하하하	악당 목소리	우하하하~ 나는 이곳에서 제일 무서운 악당이라구~

음성표현 요령

1. 도입부

- 가) 각 문장의 첫 음은 낮게 시작하고 여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빠르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나) 전래동화의 경우 구수한 느낌으로 시작하고 동식물이 등장하거나 생활동화의 경우 산뜻한 기분을 주는 것이 좋다.

2. 전개

- 가) 말의 속도를 적당하게 한다. 보통 아나운서의 경우 말하는 속도는 1분 동안 200자 원고용지 2매 정도에 해당하며, 3분에 1,200자 내외이나 동화구연을 할 때는 3분 원고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자 내외가 적당하다.
- 나) 동화구연은 CD처럼 다시 들을 수 없으므로 어린이의 속도에 맞춰 구연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의 표정을 살피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 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반드시 한 박자를 쉬고 문어체는 구어체로 바꾸어 구연한다.
- 라) 동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역할 및 캐릭터를 잘 분석해야 한다.
- 마) 호흡조절을 하면서 구연하며, 바탕글과 대화체에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 바) 이야기 전개에 맞게 얼굴의 각도를 바꾸거나 몸짓을 곁들여 청중이 구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강조하기와 끊어 읽기, 고저장단, 강약 조절, 포즈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사) 손이나 발 등을 산만하지 않게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짓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느낌으로 구연의 효과를 높여 준다.

3. 마무리

- 가) 어미 처리는 끈을 살짝 감는다는 생각으로 구연하며, 늘어지거나 툭 떨어뜨리거나 흐리지 않게 한다.
- 나) 교육적인 말을 첨가 하지 않아야 하며, 동화의 여운을 살려 준다.

목소리 조절하기

1.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습

- 가) 높은 목소리 : “불이야, 불! 빨리 피하세요!”
- 나) 낮은 목소리 : “쉿, 이 이야기는 비밀이야!”
- 다) 강한 목소리 : “넌 할 수 있어!”
- 라) 약한 목소리 : “지갑을 잃어 버렸어”
- 마) 느린 목소리 :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 바) 크고 힘찬 목소리 : “넌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거야!”
- 사) 작고 힘없는 목소리 : “숙제를 못해왔어요”
- 아) 점점 커지는 목소리 : “바위에 부딪쳐 피가 나고 돌 뿌리에 채이면서도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 자)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 “그때, 우지끈 하고 허수아비의 팔 하나가 바람에 부러지더니 몸이 점점 밑으로 밑으로 기울어졌어요”

책 읽어주기 요령

- ♣ 좋은 책을 고른다.
- ♣ 책을 읽어주기 전에 반복해서 읽어보고 숙지한다.
- ♣ 책을 잡는 바른 자세와 용모, 복장, 태도를 한다.
- ♣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림책을 골고루 보여준다.
- ♣ 문어체는 구어체로 바꿔 읽는다.
- ♣ 시선은 책(20%), 아이들의 눈(80%)에 둔다.
- ♣ 화술과 상황에 맞는 감정을 넣어 재미있게 읽어준다.
- ♣ 도입과 느낌 나누기를 한다.

주의집중 손유희

주먹가위보~주먹가위보~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보자기 오른손도 보자기 식빵맨 식빵맨
주먹가위보~주먹가위보~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보자기 오른손도 보자기 나비 나비
주먹가위보~주먹가위보~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가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먹가위보~주먹가위보~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가위 오른손도 가위 토끼 토끼

인사 손유희

예쁜 손을 흔들어서
등 뒤에 붙이면 열중 셋
예쁜 손을 흔들어서
옆에다 붙이면 차~럿
예쁜 손을 흔들어서
배꼽에 붙이고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사 손유희

콩닥콩닥 콩닥콩닥 춤을 추다가~

콩닥콩닥 콩닥콩닥 윙크하세요~

콩닥콩닥 콩닥콩닥 손뼉치다가~

콩닥콩닥 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주의집중 손유희

♡ 고릴라 가족

사냥꾼과 고릴라가족이 딱 마주쳤어요.

아빠 고릴라가 사냥꾼을 보고

쿵왕왕 쿵왕! 쿵왕왕 쿵왕! 문제없어!

엄마 고릴라가 사냥꾼을 보고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아이 무서워~

아기 고릴라가 사냥꾼을 보고 앵~

콩코로콩콩 콩콩 콩코로콩콩 콩

아일러 뷰~

숫자놀이 손유희(쥐가 한마리)

쥐가 한 마리 쥐가 두 마리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쥐가 여섯 마리 쥐가 일곱 마리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쥐가 도망가네 쥐가 도망가네

쥐가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

쥐구멍이지 쥐구멍이지 쥐구멍에 숨었지 야옹~ ~ ~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모두 숨는다.

눈물로 뭉친 참깨가족

어느 산골 작은 들판에 축제가 열렸어요.

채소와 열매들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열매대회에 참가했지요.

수염이 하얀 옥수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지금부터 열매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충청도 호박 청년이 나왔어요.

“안녕하시유~ 충청도에서 온 호박이여유~ 지가 좀 못생겼지유~

그래두 지가 얼마나 맛있다고유~ 호박범벅도 호박죽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난리구만유~ 맛도 크기도 지가 제일이어유~”

그 옆에 해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불이 빨개진 대구 사과아가씨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예 새콤 달콤 사과입니다. 지가 과일 중에 가장 이쁘지요?” 사과아가씨의 인사가 끝나자 노란 레이스 속옷을 꼭꼭 끼어 입은 강원도 배추 아줌마가 나왔어요.

“두말 할 것도 없시오. 짐치없이 밥을 우터 먹을 수 있소? 그러이 내가 제일이래요!” 그런데 아직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참깨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나도 열매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안돼, 전에도 나갔다가 작다고 창피만 당하고 돌아왔잖니?”

“그래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자 참깨 할머니가 안타까운 듯이 입을 열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나갔을 때는 너무 작아서인지 호박청년이 내 위에 털썩 앉아버리지 않았겠냐?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상한단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던 아기참깨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물로 젖은 아기참깨 몸에 다른 참깨들이 달라붙기 시작한거예요. 참깨가족은 어느 새 아주 큰 참깨 덩어리가 되었지요. 드디어 참깨 가족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참깨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불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소해진답니다. 사람들은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지요.”

열매와 채소들의 자랑이 끝나자 옥수수 할아버지가 책상을 탕탕 쳤어요.

“자~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열매상은 모두 힘을 합쳐서 사랑으로 뽕뽕 뭉친 참깨가족입니다. 박수~~”

모두들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참깨가족은 너무 기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동물나라 방송국

내일은 동물나라에 방송국이 생기는 날이에요.

염소 아저씨가 탱자로 만든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에헴,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소식을 알려 드릴 염소입니다.”

그러자 여우 아주머니가 썰쭉하며 나섰어요.

“아니 그런 답답한 소리로 방송을 하면 어떡해요? 나처럼 예쁘고 통통 튀는 목소리가 어울리죠”

이번에는 다람쥐가 나섰어요. “동물나라 친구들은 저처럼 씩씩한 목소리를 좋아할 거예요”

“무슨 소리? 듣직한 소리를 가진 내가 최고지” 곰이 큰소리로 말했지요.

그러자 너도나도 방송을 하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참나무 방송국이 흔들흔들 흔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부엉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자 이렇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녀 본 제비 아주머니에게 물어봅시다.”

제비 아주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두들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국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깐요. 먼저 몸이 재빠른 다람쥐는 여기저기 다니며 소식을 쓰는 기자가 되면 어떨까요?”

제비 아주머니가 말하자 다람쥐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매일매일 시간표는 부엉이 할아버지가 맡아주세요. 그리고 녹음하는 일은 염소 아저씨, 날씨담당은 여우 아주머니, 새로운 뉴스는 사슴 아가씨가 맡아 주세요”

“그럼 저처럼 몸집이 큰 동물은 무얼 하죠?”

곰은 방송국을 지키는 경비원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사슴 아가씨의 차분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물나라 방송국이 문을 여는 날입니다. 먼저 합창단의 축하 노래가 있겠습니다.”

종달새와 피꼬리는 밤새 연습한 노래를 정성껏 불렀어요.

그 소리에 늦잠 자던 아기 동물들이 모두 일어났지요.

“와~ 방송 덕분에 부지런해지겠네”

“그 뿐만이 아냐, 빨리빨리 알려 주는 방송국이 있으니까 사냥꾼이 와도, 비가 와도 걱정 없대.”

그날 이후, 참나무 방송국은 동물나라 친구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목장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양들을 데리고 들로 나갔지요.

“양들아, 여기 싱싱한 풀들 많이 먹어.”“메에~ 메에~”

“아유! 즐려, 조금만 자야지”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아음~잘랐다. 벌써 돌아갈 시간이네. 자, 모두 모여. 목장으로 돌아가자”

“메에~ 메에~”

“몇마리인지 세 봐야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여덟마리, 아홉 마리,

어? 한 마리가 없네? 어찌지? 아기양이 없어졌잖아. 어서 찾아보자”

소년은 말을 타고 달렸어요.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여기에도 없네. 저쪽으로 가 봐야지”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어? 여기에도 없네”

소년이 한참을 가다보니 긴 다리가 나왔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면 아기 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다리를 건너가자 네 개의 동굴이 나왔지요.

“이 동굴속에 아기양이 있을지도 몰라”

“아기양아~ 아기양아~ 동굴 속에 있니?”

“아기양아~ 아기양아~ 여기에 있니?”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지친 소년은 배가 고팠지요.

“어휴, 배고파.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찾아봐야지.”

도시락을 열자 맛있는 통닭이 나왔어요.

“우와~ 맛있는 통닭이다! 역시 우리 엄마 통닭은 최고야! 남남남 맛있다.

나는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아기양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어서 찾아봐야지.

따그닥 따그닥”

“어? 여기 있었네. 아기 양을 찾았어! 아기양아 집에 가자”

양치기 소년은 아기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양치기 소년은 양을 더욱 잘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도깨비

깊은 숲 속에 동물들을 몹시 괴롭히는 심술꾸러기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토순이가 길을 가다가 도깨비를 만났지요.

“토순아, 너 오늘 잘 만났다! 하하하”

토순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멋쟁이 도깨비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들어 주시겠어요?”

“뭐? 그게 뭐냐?”

“도깨비님은 몸을 작게 만들 수 있다면서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뭐야! 좋다. 내가 한번 보여주지. 깨비깨비 도깨비! 작아져라 작아져~ 얍!”

도깨비는 메론 만큼 작아졌어요.

“좋아, 이젠 너를 혼내주겠다.”

“우와~ 도깨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번만 더 작아져 보세요. 네?”

토순이의 칭찬에 신이 난 도깨비는 또 작아졌어요.

“하하하 좋다. 깨비깨비 도깨비! 작아져라 작아져~ 얍!”

이번에는 도깨비가 사과만큼 작아졌어요.

“우와~ 도깨비님, 정말 멋지세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작아져 보세요. 네?”

“뭐? 내가 멋지다고? 히히히 좋다. 한번만 더 보여주마”

“깨비깨비 도깨비! 작아져라 작아져 얍!”

도깨비는 자두만큼 작아졌어요.

그러자 토순이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나쁜 도깨비야! 이제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자두만큼 작아진 도깨비를 토순이는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좋은 그림책 소개 1



18



1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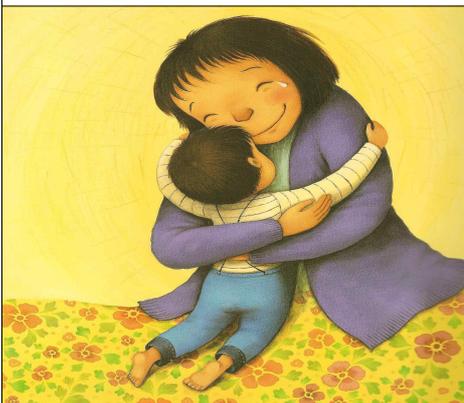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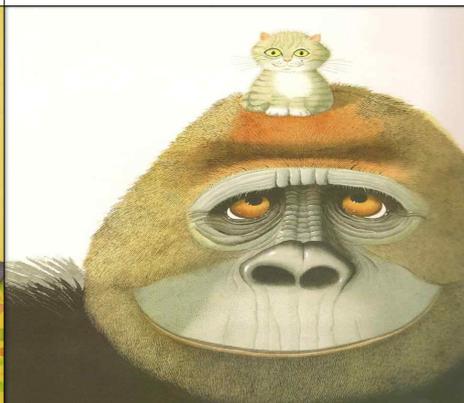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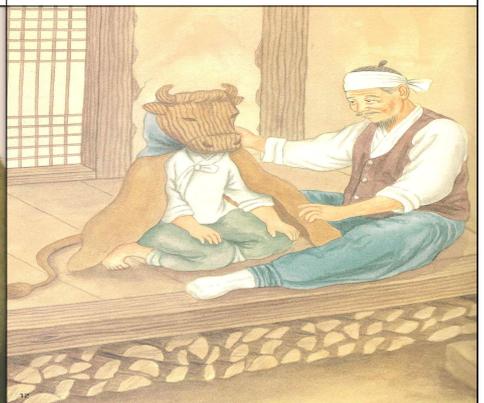
18



18



18



18

MEMO